

인종주의와 빈곤의 정치학 : 2001년 영국 올덤 소요사태*

염 운 옥**

목차

- I. 2001년 봄, 북부 잉글랜드 올덤
- II. 소요사태와 주제: ‘아시안 갱’ 혹은 ‘분노한 시민’
- III. 쌍방의 인종폭력? 폭력과 대항폭력
- IV. ‘자발적 분리’ 혹은 ‘인종적 분리와 배제’
- V. 소요사태 이후: 다문화주의에서 ‘공동체 결합’으로

I. 2001년 봄, 북부 잉글랜드 올덤

2001년 봄, 영국은 20여년 만에 최악의 ‘인종 소요사태(race riots)’¹⁾를 경험했다. 브리튼 섬 한가운데서 타오른 폭력사태의 불길은 같은 해 가을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327-2009-1-A00101).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연구교수

1) ‘riot’는 한국어로 번역하기 매우 까다로운 개념이다. 흔히 ‘폭동’이라고 번역되지만, 이 번역어는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정부와 경찰의 치안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건이 ‘폭동’이라면 가담자는 ‘폭도’가 되고, 사건에 참여한 행위주체의 동기와 목적, 주장을 경청하기 어려워진다. 반면, ‘사태’라는 번역어는 지나치게 중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저항과 항의가 함축된 의미를 놓치고, 단순한 소란이나 무질서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다. ‘폭력을 수반하는 자연발생적이며 무정형(無定形)한 정치운동’인 riot의 의미를 살리기에는 ‘폭동’도 ‘사태’도 부족한 번역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잠정적으로 ‘소요사태’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대서양 건너편 뉴욕을 강타한 9.11테러만큼이나 영국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5월 중순 잉글랜드 북부 소도시 올덤(Oldham)에서 시작된 소요 사태는 인근 도시 번리(Burnely)와 브래드퍼드(Bradford)로 번져 남아시아인과 백인 사이에 유혈 충돌사태가 벌어졌다. 1980년대 런던 브릭스톤(Brixton), 리버풀 톡스테스(Toxteth), 맨체스터 모스사이드(Moss Side) 소요사태는 경찰의 인종차별과 과잉진압에 카리브계 흑인 공동체가 폭력 시위로 맞선 사건이었다. 공권력과 흑인 공동체의 대결 양상을 보였던 1980년대 인종 소요사태와 대조적으로, 2001년 북부 잉글랜드 소요사태에서 는 남아시아계 이주민 2,3세대와 백인 청년들이 충돌했다.

올덤, 번리, 브래드퍼드는 남아시아계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동시에 실업률이 높고 빈곤하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2001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올덤의 무슬림 주민은 약 11%이고 파키스탄 출신 주민은 6.3%이다. 브래드퍼드와 번리의 무슬림은 각각 16.1%와 6.6%, 파키스탄 출신은 각각 14.5%, 4.9%이다.²⁾ 세 도시 모두 산업화 시대 북부 면직물 공업의 중심 도시로 오늘날에도 제조업 노동자 인구가 50%를 넘는 전형적인 ‘블루컬러’ 도시이다. 그러나 탈산업화 시대를 맞아 섬유산업이 쇠퇴하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지역경제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특히 인종별로 분리된 노동시장에서 남아시아계 무슬림 이주민은 백인 보다 더욱 혹독하게 실업과 빈곤의 고통을 겪어내야 했고, 이는 2001년 소요사태를 배태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2001년 북부 잉글랜드 소요사태 중에서 올덤의 경우에 주목한다. 올덤은 잉글랜드 북서부 맨체스터 광역시와 요크셔 전원지대 사이에 위치한 인구 10만의 소도시로서 인구 7만의 번리 보다는 크고, 인구 30만의 브래드퍼드 보다는 작은 규모이다. 2001년 가장 격렬한 폭력사태를 경험한 도시는 올덤이 아니라 브래드퍼드였다. 326명의 경찰이 부상

2)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1 Census.

당했고 경찰 집계 피해액은 천만 파운드에 달했다. 체포된 시민은 297명, 그 가운데 187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올덤에서는 경찰 90명과 시민 21명 부상, 수백만 파운드의 재산 피해가 났다. 올덤 소요사태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시민은 백인 12명, 아시아인 22명이다. 올덤은 브래드퍼드에 비해 폭력 정도나 피해규모는 덜했지만 2001년 사태의 첫 분출이었다는 상징성이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이 올덤에 주목하는 이유가 ‘최초’라는 상징성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이유는 올덤 소요사태가 주류사회가 구축하는 남아시아계 무슬림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적 이미지에 전환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데 있다.

1989년 루시디(Rushdie)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된 무슬림의 악마화는 2001년 절정을 향해 가파르게 달려갔다. 주류사회와 미디어는 소요사태에 연루된 남아시아계 무슬림 청년들을 마약을 거래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아시안 갱(Asian gangs)”³⁾, 경찰과 시가전을 벌이는 위험천만한 ‘폭도’라고 매도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아시아계의 이미지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영국사회에 순응하는 온순한 소수자였다. 하지만 2001년 남아시아계 무슬림은 이제 더 이상 준법시민이 아니었다. ‘온순한 소수자’라는 인종적 스테레오타입은 ‘범죄자’라는 또 다른 스테레오타입으로 변주된다. 올덤 소요사태를 계기로 인종차별과 인종폭력의 희생자였던 무슬림 청년들이 ‘아시안 갱’이라는 오명을 쓰고 가해자로 자리를 옮겼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뒤바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전(逆轉)’ 현상이 올덤 소요사태에서 또렷하게 관찰되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폭력사태로 치달아가는 과정에서 백인의 희생자 의식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이를 활용하

3) Jeevan Vasagar, David Ward, Abigail Etim and Matt Keating, “No Go For Whites’ in Race Hotspot Community Leaders in Oldham Dispute Police Claims Over Attacks by Asian Gangs: Special Report Race Issues in the UK,” *The Guardian*, 20 April 2001. <http://www.guardian.co.uk/uk/2001/apr/20/race.world> (검색일: 2012년 9월 27일).

는 극우정당 영국국민당(British National Party)과 국민전선(National Front)의 동원과 인종 소요사태 사이의 길항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도 올덤은 주목할 만하다.

2001년 소요사태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2008년에 나온 선구적 연구서 『소요사태를 일으킨 시민들: 다문화사회 영국의 인종 갈등 (Riotous Citizens: Ethnic Conflict in Multicultural Britain)』⁴⁾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몇 편의 연구논문⁵⁾과 2005년 프랑스 방리유(banlieue) 소요사태⁶⁾와의 비교연구⁷⁾를 제외하면 북부 잉글랜드 소요사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여기에는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아직 10여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화'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공백을 깨고 나온 이 책은 소요사태 발생 전후의 사회적·정치적·문화적 맥락에 대해 명석한 설명을 제공한다. 더구나 소요사태에서 군중의 행동에 대한 물상화와 일반화를 거부하고 다양한 동기 와 행동의 다면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를 위한 훌륭한 출

-
- 4) Paul Bagguley and Yasmin Hussain, *Riotous Citizens: Ethnic Conflict in Multicultural Britain* (Aldershot, England; Burlington, VT: Ashgate, 2008).
 - 5) Colin Webster, "Race, Space and Fear: Imagined Geographies of Racism, Crime, Violence and Disorder in Northern England," *Capital & Class*, no. 80(2003), pp. 95-122; Claire Alexander, "Imagining the Asian Gang: Ethnicity, Masculinity and Youth After 'the Riots'," *Critical Social Policy*, vol. 24, no. 4(2004), pp. 526-549; Yasmin Hussain and Paul Bagguley, "Citizenship, Ethnicity and Identity: British Pakistanis after the 2001 'Riots'," *Sociology*, vol. 39, no. 3(2009), pp. 407-425.
 - 6) 2001년 영국 소요사태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혀 없는 반면, 2005년 프랑스 방리유 소요사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나와 있다. 박단, 「2005년 프랑스 이민자 '소요 사태'를 돌아보며」 박단 엮음, 『현대 서양사회와 이주민: 갈등과 통합 사이에서』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pp. 541-587; 이기라·양창렬 외 지음, 『공존의 기술: 방리유, 프랑스 공화주의의 이면』 (그린비, 2007).
 - 7) Davis Waddington and Mike King, "Identifying Common Causes of UK and French Riots Occurring Since the 1980s," *The Howard Journal*, vol. 48, no. 8(2009), pp. 245-256; David Waddington, Fabien Jobard and Mike King, *Rioting in UK and France: A Comparative Analysis* (Cullompton: Willan, 2009).

발점이 되어 준다. 다만, 브래드퍼드가 분석대상이기 때문에 올덤과 번리의 사례는 비교를 위한 소략한 서술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시각과 접근방법에 기대어, 올덤 소요사태에 대한 증언과 목격담, 신문과 방송의 보도 기사, 내무부 보고서와 올덤시 단독 조사보고서 등을 분석해 올덤의 인종 갈등을 ‘두텁게’ 묘사해 보고자 한다.

II. 소요사태와 주체: ‘아시안 갱’ 혹은 ‘분노한 시민’

2001년 올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사건의 시공간으로 들어가 보자. 부록 <표1>은 2001년 12월 11일 발간된 『올덤 독립 리뷰: 리치 보고서(Oldham Independent Review: Ritchie Report, 이하 리치 보고서)』⁸⁾를 바탕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올덤에서 발생한 폭력상황과 관련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표1>을 따라가며 소요사태를 읽어내 보자.

첫째, 소요사건을 시간 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맨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실은 폭력사태의 지속성이다. 충돌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난 시점은 4월 20일과 21일, 5월 26일이다. 하지만 아시아 청년과 백인 청년이 폭력을 주고받는 사건은 적어도 2001년 1월부터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 올덤 사태는 결코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올덤은 맨체스터 광역시 권역의 10개 소도시 가운데 인종폭력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내무부에 제출된 올덤시·맨체스터광역시경찰보고서는 올덤에서 지난 8년 동안 인종갈등이 상시적으로 존재해 왔다고 지적한다.⁹⁾ 인종 간 긴장과 갈등, 경찰에 대한 불신은 매년 여름 올덤 도심 거리에서 ‘의식(儀式)처럼’ 벌어지는 경찰과 청년들 사이의 소규모 공방전으로 표출되었다. 빨간색 이층버스를 탈취해 대로변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경찰과 대치하는 경우도 있었

8) *Oldham Independent Review: Ritchie Report* (2001).

9) Colin Webster, "Race, Space and Fear," p. 109.

다.¹⁰⁾ 따라서 2001년 사태는 이미 의례화(儀禮化)·일상화(日常化)되어 있던 소소한 인종 갈등이 어떤 계기로 커다란 파열음과 함께 폭발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둘째, 도시공간과 폭력 발생분포 사이의 상관관계다. <표1>과 같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따로 표시해 보면 백인에 대한 아시아인의 공격과 아시아인에 대한 백인의 공격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¹⁾ 아시아계가 백인을 폭행한 사건은 웨스트우드(Westwood)와 글로드윅(Glodwick)에서 발생한 반면, 백인에 의한 아시아계 습격은 채더튼(Chadderton)과 워네스파크(Werneth Park)에서 일어났다. 폭력 발생과 장소의 이러한 상관성은 백인과 유색인에게 각기 출입금지구역(no-go area)이 존재할 정도로 올덤 도시공간이 철저하게 ‘피부색에 따라’ 분할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채더튼과 워네스파크를 비롯해 피톤힐(Fitton Hill), 라임사이드(Limeside), 애비힐즈(Abbeyhills) 등은 백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반면, 도심에 가까운 글로드윅과 웨스트우드는 남아시아계 이주민의 집중 거주지역이다. 올덤에서 인종별 도시공간의 분리가 얼마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는가에 대해 올덤 출신으로서 켄 리빙스턴(Ken Livingston) 전(前)런던시장의 자문위원을 지낸 리 채스퍼(Lee Jasper)는 이렇게 증언한다. 자신과 같은 카리브계나 남아시아계가 백인 구역에 가지 않는 것은 상식이었다고, 유색인이 백인 여성과 함께 시내 중심가로 외출하거나 백인 구역을 통과하는 것은 언제나 인종폭력을 자초하는 행위였다고.¹²⁾

10) Virinder S. Kalra and James Rhodes, "Complexities and Comparisons: Re-reading the Riots in Oldham and Burnley."

11) 사건과 장소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거나, 특정 인물의 발언이나 시당국의 결정 등 장소와 관계없는 사항의 경우는 장소를 표시하지 않았다.

12) Lee Jasper, "Bricks for Oldham: Special Report Racial Issues in UK," *The Guardian*, 29 May 2001. <http://www.guardian.co.uk/politics/2001/may/29/race.world1>

셋째, 극우정당의 동원과 활동이 인종 소요사태를 촉발하고 악화시켰으며, 6월 7일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주었다. 국민전선은 3월 31일, 5월 5일, 5월 19일 세 차례나 집회와 행진을 신청했다. 비록 시당국의 금지로 무산되기는 했으나 5월 5일과 5월 19일, 국민전선 지지자와 만나치동맹(Anti-Nazi League)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세력을 과시하는 극우정당의 존재는 남아시아계 이주민에게 긴박한 위협일 수밖에 없었다. ‘올덤 방글라데시 청년연합(the Oldham Bangladeshi Youth Association)’ 대표 아쉬드 알리(Ashid Ali)는 폭력사태가 절정에 달한 5월 26일 토요일의 정황을 이렇게 말했다.

어제 아침 국민전선 당원들이 글로드윅에서 주택 창문을 깨고, 아시아계 중년여성을 때려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 안타깝게도 온 영국이 이번 소요사태를 아시아계 청년과 경찰의 충돌로 보고 있지만, 실상은 국민전선 소속 백인 청년들이 도발한 것이다. 그들은 늘 이런 식이었지만, 어제는 임계점을 넘었다.¹³⁾

앞서 언급한대로 올덤 소요사태에서 폭력은 인종별로 분리된 공간을 따라 발생했다. 하지만 조직화된 극우 백인청년들의 폭력행사 방식은 달랐다. 5월 26일 국민전선 당원들은 아시아계 주거지역 글로드윅을 습격함으로써 인종별 도시 공간 분리의 경계선을 넘었다. 이러한 폭력 행동은 인종별 세력권 자체를 과기할 수 있는 힘을 과시하는 행위였다. 결국 이 사건은 아시아계와 백인의 격렬한 충돌을 야기했다.

극우정당의 동원과 세력 과시는 총선 결과에 반영되었다. 영국국민당의 성공은 총선을 앞두고 아시아계를 자극해 대항폭력을 유발함으로써 대중의

(검색일: 2012년 10월 1일).

13) "Oldham Riots: Two Perspectives," *BBC News*, 27 May 2001, http://news.bbc.co.uk/2/hi/uk_news/1354486.stm (검색일: 2012년 10월 1일).

눈앞에 무슬림의 위협이 현존함을 보여주고, 이슬람혐오(Islamophobia)를 득표 전략에 활용한 결과였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6월 7일 총선에서 닉 그리핀(Nick Griffin)이 이끄는 극우정당 영국국민당은 올덤 웨스트(Oldham West) 선거구에서 16%가 넘는 표를 얻는데 성공했다.¹⁴⁾ 올덤 웨스트 선거구에서 영국국민당은 6,552표를 획득해 20,441표를 얻은 노동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또한 <표3>에서 보듯이, 올덤 이스트 앤드 새들워스(Oldham East and Saddleworth)에서도 5,091표를 얻었다. 올덤 웨스트와 올덤 이스트의 총선 결과를 <표4>의 애쉬톤 언더 라인(Ashton-under-Lyne) 선거구와 비교해 보자. 맨체스터 광역시 권역 도시로 올덤 남동쪽에 위치한 애쉬톤 언더 라인에서는 영국국민당이 1,617의 표를 얻는데 그친 것을 보면 올덤 소요 사태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자명하다.

그렇다면 올덤 인종 소요사태의 주인공, 그들은 누구인가? 미디어의 표현대로 ‘아시안 갱’인가? 아니면 극우 인종주의자의 습격에 항의하는 ‘선량한 시민’인가? 백인청년들과 폭력을 주고받고, 경찰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주체들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올덤 무슬림 이주민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섬유산업도시 올덤에 먼저 이주해 온 사람들은 카리브 출신 흑인들이었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 남아시아계 무슬림은 이들의 뒤를 이어 면직물공장 야간근무 노동자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1950·60년대 올덤을 비롯한 북부 잉글랜드 공업지대에 공장 노동자로 이주해온 남성 노동자들은 인도의 빈곤지역 미르푸르(Mirpur), 펀잡(Punjab), 카슈미르(Kashmir), 실렛(Sylhet) 등의 지역 출신이었다. 1970·80년대에 이들이 고향에서 아내와 자녀를 불러오거나 아내를 맞아 데려오면서 연쇄이주

14) 영국국민당의 활동과 전략, 특히 다문화주의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유용하다. 정희라, 「영국에서 극우정당은 살아남을 것인가: 영국국민당과 다문화주의」, 『역사와 문화』 (근간), pp. 307-328.

가 잇따르게 되었다. 젊은 독신 남성 노동자의 결혼과 자녀출산, 가족재결함으로 인해 무슬림 공동체는 아동과 청소년층이 많은 인구구조를 형성했다. 새로 들어온 이민자는 먼저 정착한 친척과 친구를 따라 도시중심부에 정착했다.

1970년대 말부터 영국 경제가 탈산업화 시대를 맞으면서 섬유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남아시아계 이주민 1세대의 삶은 궁핍해지기 시작했다. 올덤에서는 가난도 피부색을 가렸다. 올덤은 전국에서 가장 빈곤한 그룹에 속하는 도시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주민의 빈곤과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각했다. 1980년대 제조업이 쇠퇴하는 공장노동자의 대량실업 사태를 낳았고, 이때부터 이주민 1세대는 빈곤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1990년대 올덤에서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백인이 5%인 반면, 파키스탄 출신은 50%, 방글라데시 출신은 60%나 되었다.¹⁵⁾

서비스업이 부상하던 시기에 운 좋게 기회를 잡아 소규모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사람들도 몇 안 되지만 있었다. 저렴한 테이크어웨이(take-aways) 음식점이나 소매상점을 개업하거나 택시운전에 뛰어드는 경우이다. 자영업은 사회적 상승을 성취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기회인 동시에 노동시장의 기회제한과 인종차별에 대처하는 생존전략이기도 했다. 할랄(halal) 푸드를 찾는 무슬림이나 펍(pub)에서 귀가하는 취객이 주된 고객층을 이루는 테이크어웨이 음식점은 제한된 시장 규모 때문에 발생하는 과열경쟁과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이 따로 없는 고된 노동 탓에 대체로 6~9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폐점했다. 테이크어웨이 주인들은 주로 가족노동에 의존했지만, 일손이 달릴 경우에는 16~25세 사이의 젊은이들을 낮은 임금에 고용했다.¹⁶⁾ 택시운전의 경우는 노동시간이 유연하고 현금을 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

15) Colin Webster, "Race, Space and Fear," p. 105.

16) Virinder S. Kalra, *From Textile Mills to Taxi Ranks* (Aldershot: Ashgate, 2000), pp. 160-178.

였지만, 인종폭력이라는 복병이 있었다. 택시 안은 인종주의가 상습적으로 발현되는 공간이었다. 사소한 말다툼에서부터 폭언, 폭력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택시운전사들은 운전석 밑에 비상벨을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만 했다. 남아시아계 택시 운전사가 백인 인종주의자의 습격을 받아 부상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했다.¹⁷⁾

이주민 1세대의 곤궁한 삶은 2,3세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었다. 만성적인 실업과 빈곤은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스스로를 영국시민이라고 생각하는 무슬림 청소년들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갔다. 이들의 좌절과 분노는 학업 실패로, 청소년 비행과 일탈로 나타났다. 때로는 마약거래와 폭력을 일삼는 진짜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고 소요사태의 주인공이 ‘아시안 갱’은 아니다. 소요사태의 본질은 아룬 쿤드나니(Arun Kundnani)가 정확하게 지적한대로 “폭력에 상처받은 자들의 폭력(the violence of the violated)”¹⁸⁾이라는데 있다. 인종 소요사태는 몇몇 소수의 일탈한 이주민의 난동이 아니라 만연한 빈곤과 지속되는 인종폭력 앞에 달리 저항할 방법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발언하는 방식이었다.

뿐만 아니라 인종 소요사태는 이주민 2, 3세대의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이다. 1989년 루시디 사건과 걸프전 이후 영국 사회에는 무슬림 종교와 문화를 악마화하고, 무슬림을 ‘문제 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 졌다.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무슬림 공동체를 보호하기는커녕 ‘인정의 정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수자 집단으로 만들었다. 백인의 인종

17) *Ibid.*, pp. 180–195. 맨체스터에서는 1992년 택시 운전사 모하메드 사와르(Mohammed Sarwar)와 사디키 다다(Sadiqque Dada)가 인종폭력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18) Arun Kundnani, "From Oldham to Bradford: The Violence of the Violated," *Race & Class*, vol. 43 no. 2(2001), pp. 105–110. Arun Kundnani, *The End of Tolerance: Racism in Twenty-first Century Britain* (London: Pluto Press, 2007). 아룬 쿤드나니는 1958년 설립된 영국의 반인종주의 연구·정책기관인 인종관계연구소(the Institute of Race Relations)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인종과 계급(Race & Class)』의 편집자이다.

폭력에 맞서고, 바리게이트를 치고 경찰과 대치할 때 그들은 자신이 과연 누구인가를 묻고 있다. 왜 ‘브리티시’이면서 동시에 ‘파키스탄니’, ‘방글라데시’이고 ‘무슬림’일 수는 없는 것인가? 그들은 주체의 혼종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가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는 정체성에 대한 인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제적 재분배의 정의에 대한 요구가 소수자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인정과 결합될 때 인정의 정치는 비로소 평등의 실현을 향해 한 걸음을 더 다가갈 수 있다.¹⁹⁾

Ⅲ. 쌍방의 인종폭력? 폭력과 대항폭력

2001년 4월 21일, 웨스트우드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백인 연금생활자 노인이 아시아 청년 3명에게 습격당했다. 피해자 월터 체임벌레인(Walter Chamberlain, 당시 76세)은 광대뼈가 부러지고 얼굴 전체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체임벌레인 습격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과 남아시아계 공동체 지도자는 범인 검거를 위해 13,650 파운드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결국 10월 1일, 포크를 이슬람(Fokrul Islam)이 범인으로 체포되었고 4년형을 선고받았다. 반(反)아시아계 성향의 지방 신문 『올덤 이브닝 크로니클(Oldham Evening Chronicle)』에 이 사건이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었음은 물론이고, 피멍이 들고 심하게 부어오른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전국 미디어에 대서특필되었다. 5월 27일 『올덤 이브닝 크로니클』에 화염병이 투척된 사건도 체임벌레인 사건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 태도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체임벌레인 사건은 대중매체에 의해 아시안 갱 이미지를 가시화하는 드

19) Nancy Fraser, "Rethinking Recognition," *New Left Review* 3(May/June 2000), pp. 107-120.

라마틱한 사건으로 다루어졌다. 마치 올덤 소요사태의 핵심이 백인 노약자에 대한 아시안 갱의 비열한 폭력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로써 체임벌레인 사건은 아시안 갱의 이미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시안 갱의 이미지는 보수 성향의 신문만이 아니라 『가디언(the Guardian)』 같은 자유주의 성향의 언론도 공유했다.²⁰⁾ 체임벌레인 사건이 영국국민당의 총선 캠페인에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는 사실은 <표2>, <표3>, <표4>의 선거 결과가 선명하게 말해준다. 영국국민당이 “억압받는 백인”, “백인의 권리 회복” 같은 구호를 외치기에 이 얼마나 절호의 기회인가!

체임벌레인 사건의 중요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남아시아 무슬림 이주민의 위치를 ‘희생자’에서 ‘가해자’로 바꾸어 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미 올덤 총경 에릭 헤윅(Eric Hewitt)은 2001년 2월 2일, 올해 올덤에서 발생한 572건의 인종 범죄 가운데 62%가 아시아인에 의한 백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발언해 통계의 신빙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었다. 올덤 소요사태에 대한 올덤 시의 단독조사 보고서 『리치 보고서』에서도 인종폭력은 백인에 의한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도 있지만, 그 반대 경우도 많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올덤 이브닝 크로니클』의 소요사태 10주년 특집기사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전 현상을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인종주의는 한 방향의 문제가 아니다(Racism is not a one-way issue).”²¹⁾

남아시아 무슬림 이주민은 어떻게 해서 가해자가 되었는가? ‘아시안 갱’으로 함축되는 무슬림 남성의 공격성은 어떻게 가시화되었는가? 사실 무슬림 이주민 남성의 위협성에 대한 구축은 1990년대부터 대중매체와 공적 담론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는 1970·80년대 아프리카-카리브계

20) Claire Alexander, "Imagining the Asian Gang," p. 532.

21) "Dark Days Are Long Gone: Oldham Riots: 10 Years On," *Oldham Evening Chronicle*, 24 May, 2011. <http://www.oldham-chronicle.co.uk/news-features/8/news-headlines/56704/dark-days-are-long-gone> (검색일: 2012년 10월 3일).

흑인 남성의 이미지가 범죄자로 구성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이다.²²⁾

희생자와 가해자를 뒤바꿔 놓은 남아시아 무슬림 남성의 공격성이라는 이미지의 실상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 백인의 인종폭력과 이에 대한 남아시아계의 대항폭력(counter violence)이다. 인종폭력에 대한 대항폭력이 범죄로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계 남성을 어떻게 범죄자로 구성하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학자 콜린 웹스터(Colin Webster)는 흑인과 백인, 아시아계 사이에 범죄율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민 3세대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 비율이 50%에 이르고 청년 실업률이 60%에 달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범죄율은 백인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 아시아계의 범죄율이 높다거나 아시아계는 14세에서 20세 사이 연령대의 10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범죄율의 가파른 증가가 우려된다는 등의 범죄 담론은 주류 사회가 표출하는 일종의 모럴 패닉 현상이지 실상이 아니라는 것이다.²³⁾

나아가 웹스터는 아시아계의 범죄자 이미지 구축에 경찰과 무슬림 공동체 지도자가 침묵의 공조 체제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수자 공동체가 스스로 범죄자 이미지를 벗으려면 이른바 ‘썩은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는 논리로 공동체 지도자와 대표자들은 내부의 자정작용을 강조한다.²⁴⁾ 이러한 공동체와 경찰의 협조 체제가 작동할 때 백인 인종폭력에 대한 남아시아계의 대항폭력은 ‘범죄’로 가시화된다.

백인 인종폭력에 대한 아시아계의 응징은 백인의 눈에는 아시아계에 의한 위험한 영토화(territorialization) 현상으로 보였다. 아시아계 이주민이

22) Paul Bagguley and Yasmin Hussain, *Riotous Citizens*, p. 42.

23) Colin Webster, "The Construction of British 'Asian' Crimin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w*, vol. 25(1997), pp. 69-71.

24) *Ibid.*, p. 67.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이 형성되면서 아시아계는 만연한 인종폭력으로 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형성되었다고 느끼게 된 반면, 백인은 동일한 공간을 백인 출입금지구역으로 인식했다. 실제로 이 구역에서 백인에 의한 아시아계에 대한 공격은 곧 보복을 의미했다. 이 과정에서 백인은 아시아계의 대항폭력을 ‘인종주의’라고 묘사하고 자신을 ‘인종주의의 희생자’로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²⁵⁾

폭력과 대항폭력의 아포리아를 배태한 구조적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인종주의라는 폭력이다. 인종주의는 ‘구조적 폭력’일 뿐만 아니라 ‘극단적 폭력’이다. 에티엔 발리바르(Étienne Balibar)는 말살이나 대학살, 노예화, 강제된 인구가동 같은 현상만이 ‘극단적 폭력’은 아니라고 말한다. ‘극단적 폭력’을 그는 이렇게 정의한다.

… 개인적인 물리적 도덕적 고통의 부과 속에도, 신체적 온전함이나 자존감 곧 자신의 ‘존엄한’ 삶을 보호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가해진 상처 속에도 극단적 폭력은 존재한다. … 죽음, 강제이주, 지배자의 권력에 대한 예속을 유발하는 외상적 사건, ‘참사’와 같은 느닷없는 돌발 속에 극단적 폭력이 존재한다. 하지만 모종의 고질적인 지배가 무한정 반복되는데도 극단적 폭력이 존재한다. 극한적으로 이런 지배는 사회나 문화의 토대와 일체화되어 있기에 폭력으로 보이지 않거나 식별되지도 않는다. …²⁶⁾

“모종의 고질적 지배가 무한정 반복”되고, “사회나 문화의 토대와 일체화되어 폭력으로 보이거나 식별되지도 않는” 폭력이란 무엇일까? 바로 제도화된 인종주의(institutionalized racism)이며, 인종 없는 인종주의(racism without race)이고, 문화적 인종주의(cultural racism)이다. 이런

25) *Ibid.*, pp. 74-75.

26) 에티엔 발리바르 지음, 진태원 옮김, 『폭력과 시민다움: 반폭력의 정치를 위하여』 (난장, 2012), pp. 100-101.

의미에서 올덤의 무슬림 공동체와 청년들은 발리바르가 말하는 구조적이며 극단적인 폭력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폭력의 또 다른 무서움은 그 전염성이다. 괴물을 상대하다 자신도 괴물이 되는 악순환 말이다. 다시 발리바르를 인용해 보자.

... 우리는 여기서 극단적 폭력이 자양분으로 삼고 재생산하는 전능함의 환상과, 극단적 폭력이 그 희생자들을 무기력으로 환원하는 것(극단적 폭력의 내재적 '목표'가 바로 이것이다) 사이에 상호연관성이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원환(圓環)'은 앞서 언급한 죽음의 증식 또는 죽음의 초과 양상뿐만 아니라 한 가지 보족적인 차원, 곧 폭력의 대상을 이루는 희생자들이 폭력에 감염되는 차원도 포함하고 있다. ... 27)

폭력으로 상처받은 자들이 자신 보다 더 약한 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비열함, 이것이 체임벌레인 사건의 진정한 의미이다. 분노한 젊은이들의 폭력은 제도화된 인종주의의 이면에 다름 아니다. 제도화된 인종주의에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보이지 않는 가해자를 향한 방향 잃은 폭력이 체임벌레인 사건이다. 사실 영국사회는 제도화된 인종주의를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교정할 기회를 한번 맞이했었다. 로런스 사건²⁸⁾의 조사 보고서 『맥퍼슨 보고서(Macpherson Report)』²⁹⁾ 발간이 그 계기였다.

27) 위의 책, p. 112.

28) 1993년 4월 22일, 런던 남부에서 스티븐 로런스(Stephen Lawrence, 당시 18세)가 백인 청년 5명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 당시 경찰은 5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석방되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1997년 당시 내무장관 잭 스트로우(Jack Straw)의 주도 아래 공개조사위원회 구성, 윌리엄 맥퍼슨(Sir William Macpherson)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로런스 사건의 백인 피의자 5명 중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19년이 지난 2012년 1월이었다. 게리 돕슨(36)과 데이비드 노리스(35)에게 각각 15년2개월과 14년3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29) *Macpherson Report of the Stephen Lawrence Inquiry*, Cm 4262-I (London: HMSO, 1999).

1999년에 발간된 맥퍼슨 보고서는 인종주의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 한 첫 정부 보고서였다. 보고서가 개념화한 제도화된 인종주의란 차별 대우가 사회조직과 제도의 운영방식 속에 합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의미였다. 1981년 런던 남부 브릭스틴 흑인 소요사태를 조사한 『스커먼 보고서(Scarman Report)』³⁰⁾가 제도화된 인종주의는 영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맥퍼슨 보고서는 경찰의 직무상의 무능, 제도화된 인종주의, 경찰 고위 간부들의 지도력 부재로 인해 수사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런던 경찰의 수사행위를 제도화된 인종주의라는 개념으로 규정한 맥퍼슨 보고서의 결론은 오랜 기간 동안의 반(反)인종주의 캠페인이 이루어낸 실질적 성과라는 의미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문화연구가 스투어트 홀(Stuart Hall)은 “제도화된 인종주의’는 자유주의와 모순되지 않는다. 맥퍼슨 보고서가 지적한 제도화된 인종주의는 자유주의와 편안하게 공존하는 영국식 인종주의의 정곡을 찌르는 개념”이라고 평했다.³¹⁾

하지만 맥퍼슨 보고서는 제도화된 인종주의라는 진일보한 개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분석, 예컨대 경찰의 검문검색 같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치안업무와 제도화된 인종주의를 연관해 설명하는 데는 실패했다. 보고서는 인종주의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도 속에 기입된 인종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재생산되고 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³²⁾ 맥퍼슨 보고서의 실행과 영향력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영국사회는 제도화된 인종주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30) Lord Scarman, *The Brixton Disorders, 10-12 April 1981, Report of an Inquiry*, Cmnd 8427 (London: HMSO, 1981).

31) Stuart Hall, "From Scarman to Stephen Lawrence," *History Workshop Journal*, vol. 48(1999), pp. 187-197.

32) John Lea, "The Macpherson Report and Question of Institutional Racism," *The Howar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39, no. 3(2000), pp. 219-233.

IV. ‘자발적 분리’ 혹은 ‘인종적 분리와 배제’

북부 잉글랜드 올덤, 번리, 브래드퍼드 소요사태에 대한 내무부 보고서 『캔틀 보고서(Cantle Report)』와 블래드퍼드 사태에 대한 『오슬리 보고서(Ouseley Report)』, 『공동체 결합의 형성에 관한 대넘 보고서(Denham Report on Building Cohesive Communities)』는 제도화된 인종주의와 이주민의 빈곤이 아니라 무슬림 공동체의 ‘문화적 차이(cultural difference)’와 ‘자발적 분리(self-segregation)’를 소요사태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캔틀 보고서』는 이 지역에서 백인 사회와 무슬림 공동체 사이에 사회적 분리가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백인 사회와 무슬림 사이에 물리적·사회적 격리가 일상화되어 주류사회와 이민자는 완벽한 평행선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³³⁾ 이른바 이주민의 문화적 차이와 자발적 분리가 “평행선의 삶(parallel lives)”을 초래했다는 담론이다.

『대넘 보고서』는 영어 구사능력의 결여가 파키스탄·방글라데시 공동체의 사회적 격리와 문화적 차이를 낳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한다.³⁴⁾ 소요사태 직후인 2001년 7월 13일, 브래드퍼드 노동당 의원 앤 크라이어(Ann Cryer)는 『가디언』 지와의 인터뷰에서 무슬림 공동체의 사회적 배제는 인도 아대륙으로부터 영어를 못하는 신부를 데려와 그들의 문화를 가정 내에 영속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발언한다. 그녀는 중매결혼을 ‘빈곤의 수입(importing poverty)’이라고 비난했다.³⁵⁾ 크라이어는 1999년부터

33) Home Office, *Community Cohesion: The Cantle Report* (London: HMSO, 2001), p. 11.

34) Home Office, *Building Cohesive Communities: The Denham Report* (London: HMSO, 2001), p. 12.

35) Martin Wainwright, Anne Perkins and Alan Travis, "Bradford's 'Painful Future'," *The Guardian*, 13 July 2001. <http://www.guardian.co.uk/uk/2001/jul/13/race.world1?INTCMP=SRCH> (검색일: 2012년 10월2일).

강제결혼의 폐해를 꾸준히 주장해온 의원으로 2007년 6월, ‘강제결혼시민 보호법(the Forced Marriage Civil Protection Act)’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³⁶⁾ 내무장관 데이비드 블링킷(David Blunkett)은 센서스 결과를 인용해 남아시아계 무슬림 이주민의 30%는 영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며, 중매결혼 혹은 강제결혼을 하는 관행은 사회적 배제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결혼은 영국에 정착한 이민자들 사이에서 해야 한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³⁷⁾

중매결혼을 무슬림 공동체의 ‘전통문화’로 보고,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주류사회로부터 이들 공동체의 격리를 초래한다는 담론은 세대 차이, 세대 갈등을 과장해 무슬림 공동체 내부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사이를 분리한다. 인종적 분리와 배제의 씨줄이 무슬림 이주민 공동체와 백인 주류 사회 사이를 가르고 있다면, 날줄은 무슬림 공동체 내부의 1세대와 2,3세대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다. 인종간 분리와 세대별 분리의 교차를 통해 무슬림 공동체는 스스로 분리를 원하는 문제 집단으로 ‘구성’된다. 중매결혼 같은 ‘전통문화’를 고집하고 자녀가 고분고분하게 따르지 않을 때는 강제결혼도 불사하는 완고한 부모와 자유분방한 2, 3세 사이의 세대갈등, 자녀세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남아시아 가족의 붕괴, 이런 요소들이 혼합되어 무슬림 청소년은 일탈과 비행의 저지르는 범죄자가 된다는 내러티브가 완성되는 것이다.³⁸⁾

뿐만 아니라 인종적 분리와 배제의 과정은 철저하게 젠더화되어 있다. 남아시아 여성은 히잡(hijab)이나 니캅(niqab) 같은 베일 쓰기를 강요당하

36) 강제결혼에 대한 영국 정부의 개입과 규제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엄운옥,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갈등?: 영국의 ‘강제결혼’ 논쟁」, 『서양사론』 112호(2012), pp. 97-125.

37) Les Back, Michael Keith, Azra Khan, Kalbir Shukra and John Solomos, "New Labour's White Heart: Politics, Multiculturalism and the Return of Assimilation," *The Political Quarterly*(2002), p. 446.

38) Claire Alexander, "Imagining the Asian Gang," p. 536.

고³⁹⁾, 강제결혼과 명예살인 피해를 입는 불쌍한 ‘희생자’로 재현되는 반면, 남아시아 남성은 난폭한 ‘아시안 갱’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될 때 2001년 소요사태가 분노와 좌절의 정치적 표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차단되고 오로지 범죄서를 어기는 범죄행위로만 구성되는 것이다. 영국시민이 되고 자하는 무슬림이 왜 배제와 주변화의 대상이 되었는가를 묻지 않고, 무슬림 스스로가 분리를 원한다고 전제하는 것은 잘못이며, 결과를 원인으로 뒤집는 해석이다. 이러한 인종적 분리와 배제의 담론은 문화적 차이를 반복 재생산함으로써 주변화, 타자화하고 무슬림 이주민을 2등 시민으로 포섭하는 통치의 기술에 다름 아니며, 식민지인에 대한 분리지배(divide and rule) 방식의 재연이자 이주민에 대한 ‘재식민화(re-colonization)’⁴⁰⁾이다.

V. 소요사태 이후: 다문화주의에서 ‘공동체 결합’으로

2001년 북부 잉글랜드 소요사태는 노동당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를 가져왔다. 2001년은 남아시아계 무슬림 청년의 배제와 주변화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주민 통합 정책의 전환점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흔히 2005년 7월 7일 런던 테러 이후 무슬림의 악마화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이주민 통합정책에서 동화주의 경향이 재등장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2001년 봄과 여름의 사태를 분석한 『캔틀 보고서』, 『오슬리 보고서』, 『대담 보고서』 등 정부 보고서를 살펴보면 다문화주의에서 공동체 결합, 공동체 통합으로 정책 방향의 전환이 이때부

39) 2006년 노동당 정치가 잭 스트로우(Jack Straw)는 니킵은 “분리와 차이의 가시적 표명”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소신을 밝혔다. 스트로우의 니킵 발언으로 촉발된 논쟁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염운옥, 「영국의 무슬림 ‘베일(veil)’ 논쟁」, 『대구사학』 101집(2010), pp. 265-292.

40) 이주민의 재식민화에 대해서는 에티엔 발리바르 지음, 진태원 옮김, 『우리, 유럽의 시민들?』(후마니타스, 2010), pp. 97-104 참조.

터 이미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

2001년을 기점으로 정부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결합, 결속, 통합, 동화 같은 언어로 이주민에 대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기 시작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실패 선언이 이어지고, 생명을 다했다고 여겨지는 다문화주의를 대신해 “공동체 결합(community cohesion)” 같은 매우 수상한 개념이 등장한다. 이 개념은 원래 경제학에서 나온 개념으로서 공동체를 무성적(無性的)이고 무인종적(無人種的) 개념으로 규정한다. 1990년대까지 영국 정부가 추진해온 다문화주의 정책과 원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주민 소수자 공동체의 문화를 매우 동질적인 것으로 전제한다는 데 있다. 공동체 문화를 마치 하나의 ‘에스닉 박스(ethnic box)’처럼 취급하게 되면 공동체 내부의 이질성, 예컨대 계급, 젠더, 세대 간 차이는 보이지 않게 된다. 다문화주의의 이러한 문제점은 공동체 결합 담론에도 그대로 답습된다. 공동체 결합 담론에서 공동체(community)는 쉽사리 사회(society)를 대체하고 곧 국가(nation)와 동일시된다. 복수의 공동체가 서로 결합하고, 나아가 더 큰 가치인 국가 공동체에 결합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르면 결국 공동체 결합은 국민적 결합과 동의어가 되고 마는 것이다. 새로 등장한 공동체 결합 담론과 동화주의는 그리 멀어 보이지 않는다.⁴¹⁾

올덤 소요사태 이후 시당국과 아시아계 공동체의 노력으로 “평행선의 삶”으로 비난받았던 인종 간 분리 현상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0여년 만에 영국에서 재연된 소요사태의 첫 불길은 타올랐던 도시라는 유명세 아닌 유명세는 올덤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은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했다. 더구나 관련자 처벌에 있어서 백인과 아시아계는 결코 평등한 대접

41) Claire Worley, "It's Not About Race. It's About the Community': New Labour and 'Community Cohesion'," *Critical Social Policy*, vol. 25, no. 4(2005), pp. 483-496.

을 받지 못했다. 처벌에도 인종차별이 작용했다. 12명의 백인 피고는 12개월 감옥 명령 등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은 반면, 22명의 아시아계 피고는 평균 3년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가장 중형을 받은 아시아계 피고는 7년을 복역했다.⁴²⁾ 4년6개월 형을 받은 방글라데시계 청년 누르 미아(Noor Miah, 당시 20세)는 감옥에 있는 동안 많은 것을 잃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여전히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자신은 소요사태 당시 군중들 속에 휩싸여 있었을 뿐 아무런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몇 분 만에 체포했다는 것이다.⁴³⁾

점차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영국수호동맹(English Defence League)같은 극우단체의 도발이 또 다른 소요사태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지금 올덤에서 남아시아계 무슬림 청년이 영국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브리티시’이면서 동시에 ‘파키스타니’, ‘방글라데시’이고 ‘무슬림’이고자 하는 그들의 혼종적 정체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2001년 소요사태를 계기로 표면화된 공동체 결합 담론이 그 해답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소요사태 10주년을 회고하는 『올덤 이브닝 크로니클』 특집 기사에서 ‘올덤 종교간 포럼(Oldham Interfaith Forum)’ 대표 파잘 라힘(Fazal Rahim)은 ‘성조지의 날(St. George’s Day)’이나 ‘성조지 깃발(St. George’s Flag)’이 새로운 영국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기호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라힘은 젊은이들을 결속할 수 있는 공통언어·보편언어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가능성의 한 예로 축구를 들었다.⁴⁴⁾ 브래드퍼드의

42) Paul Bagguley and Yasmin Hussain, *Riotous Citizens*, p. 48.

43) "Oldham riots: What has changed 10 years on?," *BBC News*, 26 May 2011. <http://news.bbc.co.uk/2/hi/programmes/newsnight/9496386.stm> (검색일: 2012년 10월 10일).

44) "A Man With a Mission to Build Bridges," *Oldham Evening Chronicle*, 25 May 2011. <http://www.oldham-chronicle.co.uk/news-features/8/news-headlines/56761/a-man-with-a-mission-to-build-bridges> (검색일: 2012년 10월 5일).

한 무슬림 젊은이는 노먼 테빗(Norman Tabbitt)의 악명 높은 ‘크리켓 테스트(Cricket Test)⁴⁵⁾를 비틀어, 만일 ‘축구 테스트(Football Test)’를 실시한다면, 파키스탄계는 충성스런 영국시민으로 밝혀질 것이 틀림없다고 말한다. 브래드퍼드 축구경기에서는 극우정당이 이미 전유해 버린 ‘유니언 잭(Union Jack)’을 대신해 ‘성조지 깃발’이 잉글랜드 내셔널 팀의 응원기로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유니언잭이 영제국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이콘으로 인식되는 반면, 성조지 깃발은 식민지와 제국 이미지를 탈각한 새로운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⁴⁶⁾ 일상의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는 ‘브리티쉬’의 정체성과 이주민의 정체성을 혼성해 제3, 제4의 정체성을 창조하려는 행위주체의 모색을 보여준다.

도시 연구자 사스키아 사센(Saskia Sassen)은 9.11 다음날인 9월 12일, 강경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썼다.

이 공격은 최후의 말이었다. 억압받고 학대받은 자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 의미를 번역하는데 실패했다. 때문에 그들 중 두세 명이 이제는 번역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언어로 말할 것을 결정했다.⁴⁷⁾

45) 1990년 보수당 의원 노먼 테빗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The Los Angeles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영국의 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 “당신은 영국과 당신의 출신국가가 크리켓 경기를 한다면 영국을 응원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많은 이들이 “예스”라고 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한데서 유래했다. 크리켓 테스트 발언은 이민자가 영국시민으로서 주류사회에 얼마나 통합되었는가를 가늠하는 지표로 볼 수도 있지만, 이민자에게 영국적 가치의 수용을 일반적으로 강요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크리켓 테스트에 대해서는 정희라, 「영국: 자유방임식 다문화주의」, 박단 위음, 『현대 서양사회와 이주민: 갈등과 통합 사이에서』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pp. 383-384.

46) Paul Bagguley and Yasmin Hussain, "Flying the Flag for England? Citizenship, Religion and Cultural Identity among British Pakistani Muslims," Tahir Abbas ed., *Muslim Britain: Communities under Pressure* (London & New York: Zed Books, 2005), p. 214.

9.11과 올덤 소요사태로부터 10여년, 이제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할 때다.

*** 부 록 ***

<표 1> 2001년 1월~6월 올덤 지역 소요 사태 관련 상황⁴⁸⁾

일자	장 소	폭력 상황 및 관련 사건
1.27	맨체스터스트리트 (Manchester Street)	23세의 백인 마크 클레이턴(Mark Clayton)이 아시아 청년 수명의 공격으로 중상
2.2	.	올덤 경찰청장 에릭 헤윗(Eric Hewitt), 2001년 올덤에서 발생한 572건의 인종 범죄 가운데 62%가 아시아인에 의한 백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발언, 신빙성에 대해 의문 제기
3.31	.	극우 정당 국민전선(National Front)의 행진 계획, 시당국의 금지 요구로 무산 국민전선 활동에 항의하는 반(反)인종주의 단체, 평화행진
4.20 ~21	웨스트우드 (Westwood)	주말 동안 심각한 인종 폭력 발생 아시아 청년 1명이 다른 2명과 함께 백인 연금생활자 월터 챔벌레인(Walter Chamberlain)에 폭행을 가해, 광대뼈가 부러지고 얼굴 전체가 일그러지는 중상 이 사건은 피해자의 사진이 실린 기사로 전국 미디어에 보도
	채더튼 (Chadderton)	백인 11명이 아사드 즐피거(Asad Zulfigar)를 공격해 얼굴과 몸에 부상
	위네스파크 (Werneth Park)	아시아인 2명이 24세 백인을 칼로 찔러 손에 부상
4.24	.	경찰과 아시아인 커뮤니티 대표 공동으로 챔벌레인을 공격한 범인 검거를 위해 13,650파운드 현상금 (2001년 10월 1일 포크를 이슬람(Fokrul Islam)이 범인으로 체포, 기소되어 4년형 선고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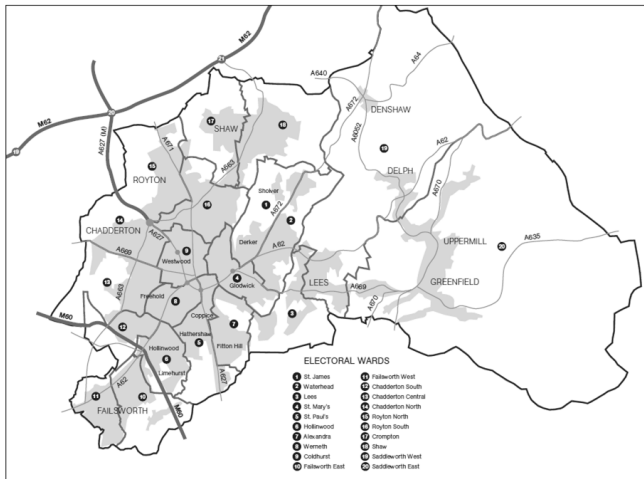
47) Saskia Sassen, "A Message from the Global South," *The Guardian*, 12 September 2001. <http://www.guardian.co.uk/politics/2001/sep/12/september11.uksecurity> (검색일: 2012년 10월 10일).

48) 이 표는 『올덤 독립 리뷰: 리치 보고서(Oldham Independent Review: Ritchie Report)』의 부록에 근거해 재구성한 것이다. 『리치 보고서』 부록 사건일지에는 장소가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일자	장 소	폭력 상황 및 관련 사건
4.26	.	국민전선이 5월 5일 집회 신청, 지역사회의 비난에 경찰서장은 시의회에 금지명령을 요청
4.28	.	올덤 애슬레틱(Oldham Athletic)과 스톡 시티(Stock City)의 축구 경기, 축구팬 사이에서 백인 인종주의자와 방글라데시 청년 간의 충돌 발생
5.2	.	시의회 요청에 따라 내무부는 3개월 동안 정치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다는 명령 내림, 하지만 국민전선 측은 명령을 무시할 것이라고 주장
5.5	.	시내 중심가에서 인종주의자와 반인종주의자의 충돌 발생, 경찰 도심 봉쇄 국민전선 지지자 50여명, 오후 늦게 버밍엄과 런던에서 도착 국민전선과 만나치동맹(Anti-Nazi League), 아시아계 청년 사이의 충돌 경찰 병력 500여명 동원, 16명 체포
5.19	.	국민전선의 추가 집회 예고, 경찰 배치. 국민전선과 만나치동맹, 각각 팸플릿 돌리기 감행, 1명 체포
5.21	브리즈힐스쿨 (Breeze Hill School)	아시아 학생과 백인 학생 간의 충돌 발생, 경찰 개입 브리즈힐스쿨 학생의 3/4은 아시아인, 1/4는 백인
5.24	브리즈힐스쿨	아시아인 학생 4명, 백인 학생 1명 체포
5.25	브리즈힐스쿨	백인 학생 1명 체포
5.26	라운드톤로드 (Roundthorn Road)	20여명의 축구팬이 낮부터 펍에서 술 마시며 인종차별적 구호 외침, 1명 체포 저녁 8시, 아시아인 1명과 백인 1명의 싸움 시작, 핸드폰 연락을 받고 달려온 친구와 가족들이 가세. 아시아인 주민의 집 창문과 자동차를 파손한 백인 7명 체포
	글로드윅 (Glodwick)	아시아인, 도심 아시아계 거주지역 글로드윅으로 돌아가는 길에 펍 공격
	글로드윅	국민전선 당원들이 아시아계 주택의 창문 깨고, 아시아계 여성을 폭행
	워털루스트리트 (Waterloo Street)	다수의 아시아인, 워털루스트리트에 모여 도심으로 행진, 경찰과 바리케이트 사이에 두고 대치 주택, 공공건물, 펍, 차량, CCTV 등 파손, 경찰관 90명 부상
5.27	웨스트우드	아시아인이 펍에 화염병 투척
5.27	.	지방신문 『올덤 이브닝 크로니클(Oldham Evening Chronicle)』에 화염병 투척
6.1	채더튼	새벽, 부시장 리아즈 아마드(Riaz Ahmad) 자택에 화염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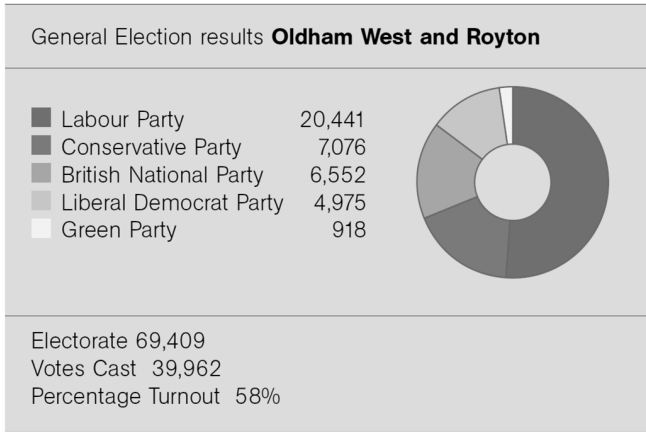
일자	장 소	폭력 상황 및 관련 사건
		투척, 화재 발생, 인명 피해는 없었음 경찰, 범인 검거를 위해 정보 제공자에게 10,000파운드 현상금
6.3	채더튼	귀가 중이던 모하메드 아시프 카야니(Mohammed Asif Kayani)가 백인 3,4명의 습격을 받아 의식 잃고 중상
6.7	·	총선에서 닉 그리핀이 이끄는 극우 정당 영국국민당(British National Party), 올덤 웨스트(Oldham West) 선거구에서 16% 득표
6.12	헤더쇼 (Hathershaw)	아시아계가 운영하는 주류 판매점에 방화 경찰, 인종 폭력 사건으로 수사
6.14	·	정치가, 경찰간부, 시공무원으로 구성된 대표단, 내무장관 데이비드 블링킷(David Blunket) 면담, 독립 조사 보고서 작성에 합의

<지도> 올덤 시 선거구 지도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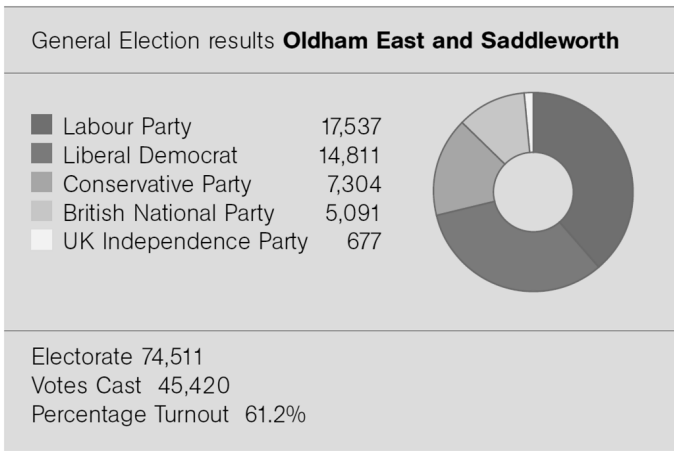


49) *Oldham Independent Review: Ritchie Report*, Appendix. p. 85.

<표 2> 총선 결과: 올덤 웨스트 앤드 로이톤 선거구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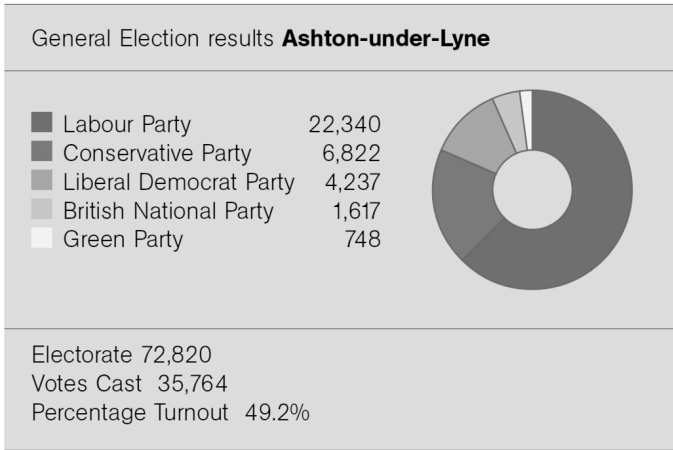
<표 3> 총선 결과: 올덤 이스트 앤드 새들워스⁵¹⁾



50) *Ibid*, p. 71.

51) *Ibid*, p. 70.

<표 4> 총선 결과: 애쉬톤 언더 라인⁵²⁾



주제어 : 인종주의, 빈곤, 소요사태, 폭력, 대항폭력, 인종적 분리, 인종적 배제, 다문화주의, 공동체 결합

(논문투고: 2012.12.1 / 논문심사완료: 2012.12.15 / 논문게재 확정일: 2012.12.17)

52) *Ibid.*, p. 71.

참고문헌

박단. 「2005년 프랑스 이민자 ‘소요 사태’를 돌아보며」 박단 엮음. 『현대 서양사회와 이주민: 갈등과 통합 사이에서』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pp. 541-587.

발리바르, 에티엔 지음. 진태원 옮김. 『폭력과 시민다움: 반폭력의 정치를 위하여』 (난장, 2012).

_____. 『우리, 유럽의 시민들?』 (후마니타스, 2010).

염운옥.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갈등?: 영국의 ‘강제결혼’ 논쟁」. 『서양사론』 112호(2012). pp. 97-125.

_____. 「영국의 무슬림 ‘베일(veil)’ 논쟁」. 『대구사학』 101집 (2010). pp. 265-292.

이기라·양창렬 외 지음. 『공존의 기술: 방리유, 프랑스 공화주의의 이면』 (그린비, 2007).

정희라. 「영국에서 극우정당은 살아남을 것인가: 영국국민당과 다문화주의」. 『역사와 문화』 (근간). pp. 307-328.

Home Office. *Community Cohesion: The Cattle Report* (London: HMSO, 2001).

_____. *Building Cohesive Communities: The Denham Report* (London: HMSO, 2001).

Lord Scarman, *The Brixton Disorders, 10-12 April 1981, Report of an Inquiry*, Cmnd 8427 (London: HMSO, 1981).

Macpherson Report of the Stephen Lawrence Inquiry, Cm 4262-I (London: HMSO, 1999).

Oldham Independent Review: Ritchie Report (2001).

- Alexander, Claire. "Imagining the Asian Gang: Ethnicity, Masculinity and Youth After 'the Riots'." *Critical Social Policy*. vol. 24, no. 4(2004). pp. 526-549.
- Bagguley, Paul and Yasmin Hussain. *Riotous Citizens: Ethnic Conflict in Multicultural Britain* (Aldershot, England; Burlington, VT: Ashgate, 2008).
- _____. "Flying the Flag for England? Citizenship, Religion and Cultural Identity among British Pakistani Muslims." Tahir Abbas ed. *Muslim Britain: Communities under Pressure* (London & New York: Zed Books, 2005).
- Back, Les, Michael Keith, Azra Khan, Kalbir Shukra and John Solomos. "New Labour's White Heart: Politics, Multiculturalism and the Return of Assimilation." *The Political Quarterly*(2002). pp. 445-454.
- Fraser, Nancy. "Rethinking Recognition." *New Left Review*. 3(May/Jun 2000). pp. 107-120.
- Hall, Stuart. "From Scarman to Stephen Lawrence." *History Workshop Journal*. vol. 48(1999). pp. 187-197.
- Hussain, Yasmin and Paul Bagguley. "Citizenship, Ethnicity and Identity: British Pakistanis after the 2001 'Riots'." *Sociology*. vol. 39, no. 3(2009). pp. 407-425.
- Kalra, Virinder S. and James Rhodes. "Complexities and Comparisons: Re-reading the Riots in Oldham and Burnley."
- Kalra, Virinder S. *From Textile Mills to Taxi Ranks* (Aldershot: Ashgate, 2000).

Kundnani, Arun. "From Oldham to Bradford: The Violence of the Violated." *Race & Class*. vol. 43 no. 2(2001). pp. 105-110.

_____. *The End of Tolerance: Racism in Twenty-first Century Britain* (London: Pluto Press, 2007).

Lea, John. "The Macpherson Report and Question of Institutional Racism." *The Howar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39, no. 3(2000). pp. 219-233.

Waddington, Davis and Mike King. "Identifying Common Causes of UK and French Riots Occurring Since the 1980s." *The Howard Journal*. vol. 48 no. 8(2009). pp. 245-256.

Waddington, David, Fabien Jobard and Mike King. *Rioting in UK and France: A Comparative Analysis* (Cullompton: Willan, 2009).

Webster, Colin. "Race, Space and Fear: Imagined Geographies of Racism, Crime, Violence and Disorder in Northern England." *Capital & Class*. no. 80(2003). pp. 95-122.

_____. "The Construction of British 'Asian' Crimin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w*. vol. 25(1997). pp. 65-86.

Worley, Claire. "'It's Not About Race. It's About the Community': New Labour and 'Community Cohesion'." *Critical Social Policy*. vol. 25, no. 4(2005). pp. 483-496.

"Dark Days Are Long Gone: Oldham Riots: 10 Years On." *Oldham Evening Chronicle*. 24 May 2011. <http://www.oldham-chronicle.co.uk/news-features/8/news-headlines/56704/dark-days-are-long-gone> (검색일: 2012년 10월 3일).

- Jasper, Lee. "Bricks for Oldham: Special Report Racial Issues in UK." *The Guardian*. 29 May 2001. <http://www.guardian.co.uk/politics/2001/may/29/race.world1> (검색일: 2012년 10월 1일).
- "Oldham Riots: Two Perspectives." *BBC News*. 27 May 2001, http://news.bbc.co.uk/2/hi/uk_news/1354486.stm (검색일: 2012년 10월 1일).
- "Oldham riots: What has changed 10 years on?" *BBC News*. 26 May 2011. <http://news.bbc.co.uk/2/hi/programmes/newsnight/9496386.stm> (검색일: 2012년 10월 10일).
- "A Man With a Mission to Build Bridges." *Oldham Evening Chronicle*. 25 May 2011. <http://www.oldham-chronicle.co.uk/news-features/8/news-headlines/56761/a-man-with-a-mission-to-build-bridges> (검색일: 2012년 10월 5일).
- Sassen, Saskia. "A Message from the Global South." *The Guardian*. 12 September 2001. <http://www.guardian.co.uk/politics/2001/sep/12/september11.uksecurity> (검색일: 2012년 10월 10일).
- Vasagar, Jeevan, David Ward, Abigail Etim and Matt Keating. "No Go For Whites' in Race Hotspot: Community Leaders in Oldham Dispute Police Claims Over Attacks by Asian Gangs: Special Report Race Issues in the UK." *The Guardian*. 20 April 2001. <http://www.guardian.co.uk/uk/2001/apr/20/race.world> (검색일: 2012년 9월 27일).
- Wainwright, Martin, Anne Perkins and Alan Travis. "Bradford's 'Painful Future'." *The Guardian*. 13 July 2001. <http://www.guardian.co.uk/uk/2001/jul/13/race.world1?INTCMP=SRCH> (검색일: 2012년 10월 2일).

The Politics of Racism and Poverty: 2001 Oldham Riots

Yeom, Woon-ok

This paper examines the Oldham riots of in the spring and summer of 2001. Oldham located near Greater Manchester, north England, is a working class town with 100,000 people. In the 2001 census, the ethnic minority of Pakistani origin accounts for 6.3% and Muslims 11.1%. Pakistani and Bangladeshi immigrants came to the area since 1950 and 60s, from Mirpur, Punjab, Kashmir and Syhlet. The chain migration of the South Asian immigrants is the main cause behind the large proportion of very young population there compared to the white British community. In the years prior to the disturbances in Oldham, officially recorded racially motivated crimes against white residents of the town were higher than anywhere in Greater Manchester.

Certain type of crime are more likely to be reported than others by media. The media reported South Asian Muslim agents of 2001 Oldham riots as "Asian gangs." The stereotyping of Asian young men has transformed them from being categorized as law-abiding and victims of racial violence to those who associated with criminality, drugs, violence and disorder. The transformation of racial stereotype prohibits one from understanding the nature of violence in the riots. As Kundnani rightly

points out, the Oldham riots were "the violence of the violated." Furthermore, the riots was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of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 of South Asian Muslims who were not benefited by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The Oldham riots became a threshold by which the British government policy has changed from multiculturalism to "community cohesion." In the discourse of "community cohesion" exists the high possibility of slippages from 'society' to 'community' and from 'community cohesion' to 'national cohesion'.

Key Words : racism, poverty, riots, violence, counter-violence, racial segregation, racial exclusion, multiculturalism, community cohesion.

